

討 論 要 旨

金玉姬 : 먼저 메디나 신부님의 한국교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어느날 일간지에 느닷없이 나온 한국교회의 전래기원이 400년이라는 기사에 대단히 놀랐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 접하여 신부님의 논고를 유심히 보았는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았다.

첫째는 이 논고로써 한국천주교 전래의 기원올 1592년으로 삼기에는 대단히 사료가 빈약하며, 또한 새로운 이론을 주장할 수 있는 사료에 대한 해설이나 註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이다. 그리하여 새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근거를 잃고 있어 전혀 학문적인 이론이 성립되지 않고 있다.

둘째는 메디나신부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사료나 주장들은 대부분이 한국학계에 이미 오래전에 발표된 상식화된 사료들이라는 점이다(물론 몇가지는 새로운 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들은 1945년 이전의 일제시대에 日人學者들이 한국의 천주교가 일본으로부터 유입되었다는 이론을 성립시키기 위해 발표한 논문이나 논고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기 일본에 오래 거주하였고 일어를 잘 하시는 메디나신부께서 이와 같은 기존의 日人論文들을 한 편도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허점으로 보여진다.

셋째는 메디나신부님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 영세를 받은 한국인 신자들이 조선 본국에 많이 들어옴에 따라 신자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사료가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신부님의 주장은 근거없는 이론으로 볼 수밖에

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 이론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확실한 사료들이 다각적으로 분석·종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洪儒漢의 「信仰生活」, 天真菴, 走魚寺의 諸學會, 李堯의 「聖教要旨」 등은 Dallet의 「한국교회사」에 조금씩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부분의 史家들이 역사적인 사실들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점차 국내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료가 발견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논쟁이 가해진 후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되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신부님의 國外側 사료발굴은 대단히 값진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의 사료가 전무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네째로는 신부님의 논문 p. 18에서 언급되고 있는 신자발생에 관한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誤認에서 비롯되어졌다는 점이다. 한국교회는 조선의 천진암, 주어사 諸學會와 남인학자들의 천주교 교리연구 및 철학과 사상에 대한 결과와 영향으로 1783년 이승훈이 북경으로 보내져 영세를 받게 되고, 그가 돌아온 후 李堯를 중심으로 교단조직이 이루어지면서 성립되어졌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한국교회의 성립에는 다른 異論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임진왜란 때 조선포로들의 일본에서의 신앙생활과 순교는 당연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 또한 하나의 한국교회의 前史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메디나신부께서 발굴하신 사료를 통하여 주장하시는 내용과 이론은 한국천주교의 전래와 기원에 관한 것으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싶다. 다만 신부님의 논문은 오히려 「한국천주교 전래 이전의 예수회 선교사들의 한국선교에 대한 시도」에 관한 것으로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부님이 주장하는 정도의 내용이 한국천주교 전래의 기원이 된다고 가정하여 문제 삼는다면 한국천주교 전래의 기원은 元의 지배하에 있던 고려시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元帝國이 북경으로 수도를 옮

것을 때 그곳에는 수많은 황족들이 천주교로 입교하였고 성당도 천주와 북경에 수다히 있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원과 고려는 그 시기에 수다한 내외적인 지배관계와 문화교류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천주교의 유입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그러한 측면에 대한 간접적인 사료들이 미세하나마 존재한다면 한국천주교의 기원을 고려시대까지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메디나신부님의 주장이나 여기서 가정해 본 고려시대 천주교 유입과 같은 문제는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崔奭祐 :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새로운 주장을 하려면 새로운 자료 또는 새로운 자료평가 및 분석, 새로운 史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선 신부님이 자신의 주장을 위해 제시한 자료에 문제가 있다. 물론 부록에 수록된 고문서 위주의 史料들은 1차적인 자료들로서 아주 가치가 높은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주로 Cespedes 신부와 일본의 한국인 순교자에 관한 사료이지 한국교회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자료들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참고문헌도 대부분이 일본교회와 예수회측의 연구저술들 뿐이고 한국인이 행한 연구자료라고는 103위 순교자전기와 윤신구 신부의 연구가 인용되고 있을 뿐이다.

다음은 사료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었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새로운 해석이나 평가를 하려면 기존의 연구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Gaspar Vilela의 서한에 관해 예수회원 Schurhamma와 Schütte 만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관한 것은 이미 Cory의 유명한 논문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개종한 한국인 포로의 귀환문제에서 한 양반 교우가 조선에서 전교하기 위해 귀국 도중에 일본의 한 섬에서 한문교리서를 배웠다는 주장은 이미 1962년 본인의 학위논문에서 언급된 사실이다. 그런데 본인은 그 한국인에 관한 한국측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다만 전교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 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신부님은 그 교우의 귀환만이 아니라 Giannone의 평범한 문헌만을 갖고 신자들의 집단귀환까지 주장하고 있다. 과연 한국 측 자료의 뒷받침없이 그런 주장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신부님이 한국교회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인용한 자료들은 史料面에서 1차적이고 기본적인 사료가 될 수 없는 것들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런 자료들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료비판을 하여야 하는데 신부님은 그것들을 아무런 비판없이 너무 쉽게 받아들인 느낌이다.

메디나신부님은 1666년 Souqui라는 중국인 신장이 한 말과 1679년에 Antoine Thomas가 포르투갈에서 한 말을 인용하여 한 주장은 철저한 쇠국주의로 유교이외의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의 조선사회를 가정해 볼 때 신중함 검토가 있어야 했다. 다시 말해 그 자료들에 대한 철저한 內的 批判이 있어야 했다. 예를 들어 Thomas의 증언은 “그런 사실을 읽은 적이 있다”는 아주 막연한 증언에 불과한 것이다. 또 메디나신부님은 Sauqui의 증언에 대해 “다른 문서들에 의해 확인되지도 거부되지도 않고 있다”고 하여 은연중에 지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보다 당시의 상황을 감안할 때 그것이 별로 참고될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교회사관의 문제로, 특히 「교회」에 대한 개념 규정의 문제이다. 첫째로는 선교와 교회라는 개념이 혼동되고 있는 느낌이다. 예컨대 영문 요약에는 「한국교회의 기원」으로 나오는데 한글 요약에는 「한국에서의 복음화(Evangelization)의 기원」으로 나오고 있다. 둘째로는 일본에서의 「한국인 교회」를 곧 「한국교회」로 보고 있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회는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로 구분되는데, 지역교회는 소구역을 단위로 하는 본당, 특히 그보다 좀더 넓은 구역을 한 단위로 하는 교구를 가르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교구, 長崎교구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교구들을 합쳐 국가단위에서 「한국교회」 또는 「일본교회」라는 지역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교회관에서 볼 때 1610년 長崎의 「한국인 교회」를 곧 「한국교회」의 기원으로 본 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이다. 그것은 長崎교구 안의 한국인 본당이거나 일본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한국인 교회이지 한국교회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일본에서의 한국인 순교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613년에 口之津에서 순교한 Hachikan Joachim은 최초의 한국인 순교자일지 모르나 한국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는 아니다.

선교의 기원과 교회의 기원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리서의 단순한 전파도 본연의 복음화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리서의 전파가 곧 그 신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신부님은 1784년에 시작된 급격한 신자증가 현상은, 일부 학자들이 진지한 연구도 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발생적 현상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끊임없는 전도에 힘입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자신에 의해 처음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며, 다만 해석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교회가 끊임없이 한국에 전도를 시도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실패로 돌아 갔었다. 한편 주로 예수회 선교사들이 저술한 한문교리서는 일찍부터 한국에 도입되어 170여년 동안이나 연구되었고 그 결과 마침내 한국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발생적」이란 하루 아침에 교회가 탄생하고 신자가 급증한다는 뜻이 아니고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들음에서」(fides ex auditu), 즉 선교사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읽음에서」(ex lectione), 즉 교리서의 연구를 통해 통해 自生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좋은 발표를 해 주신 신부님께 감사를 표한다.

趙 珖 : 먼저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한 다음 전반적인 평

가를 하겠다.

첫째, 사료비판의 문제이다. 사료비판이 결여된 역사연구는 好史家の 취미에 불과하며 역사과학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신부님의 발표 및 요약문을 통해 볼 때 사료비판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 중립적 입장을 강조했으나 여기서 사용한 1666년과 1679년의 사료라든가 증언자료로 사용한 왕과 세자의 구분마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예수회측 사료의 무비판적 인용은 서양측 사료에 대한 맹신의 흔적이 보인다.

둘째, 서술상의 문제이다.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외국인 연구자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이나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 Medina 신부님은 1711년 6월 20일 한만국경선이 개방된 후로 조선의 외교관들이 북경에 올 때마다 자유롭게 예수회원들을 방문하였고, 그 당시에 외교사절을 보좌하던 수백명의 상인들 중에는 조선인 크리스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또한 서술상에 있어서 논리의 비약은 모든 연구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과제인데 본 발표문에서는 그러한 비약이 몇군데 있다. 예를 들면 赴京使 중에 크리스찬이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주장과, 인용한 Frois의 언급 중에 “일본교회에 흡수되었다”는 표현이 없는 점만으로 한국교회가 계속 되었으리라고 해석하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일본교회사를 보면, 일본교회의 일부로 한국인 신도들이 활동, 순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으로 피납되었다가 크리스찬이 되어 귀환한 한국인이 조선에서 전교활동을 했다는 주장도 명확한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논리의 비약으로 보인다.

세째, “1592년 12월 한국천주교회가 창설되었다. 일본에서 형성된 신도 공동체가 조선으로 옮겨와서 계속 발전했고, 1784년 이후 교회의 비약적 발전에 밀바탕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다. 한국교회의 기원을 논할 때는 신앙인, 신앙전파지에 관한 문제가 동시에 주목되어야 한다. 즉, 人的 要素(personal principle)와 地域的

要素(territorial principle)가 함께 결합될 때 그 완전한 기원을 논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천주교의 수용이라 할 때 외국문화였던 천주교가 한국문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 문화의 전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1592년의 영세와 신앙공동체의 존재를 한국교회의 기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카쿠메 키리시단의 존재를 상정하고, 확인·검증되지 아니한 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초기교회의 비약적 확산을 설명하려는 태도는 비과학적 역사인식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을 근거로 하여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의 전개를 논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오늘의 역사연구자들은 초기교회의 급격한 신도증가 현상을 누구도 자연발생적이라거나 기적적 현상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당시 조선후기 사회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논문은 한국교회의 기원을 밝힌 논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한국천주교회의 先史(prehistory)를 언급한 흥미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연구서의 번역·간행에 즐거운 기대를 갖고 있다.

金勝憲 : I take Father Juan Ruiz de Medina's thesis as a welcoming stimulation that challenges us to widen our vision of East Asia as a whole and especially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early Christianity in Japan. I also appreciate his research which has discovered hitherto some unknown materials in Spanish and Portuguese about the efforts of the Japanese Church to evangelize Korea. If we accept his conclusion, it means that Korea has 395 years of Christian history and that Christian faith not only blossomed among the war prisoners in Japan from 1592 on, but also was transferred to Korea in 1605 and continued in a hidden way. The story of the baptism in Japan (1592) of the thirteen-year-old boy Kaun Vicente, is as moving as the visit and baptism in Peking (1784) of Yi Sung-hun(李承蕈), even though the former story

may soften our pride in being a unique case in missionary history of a people who voluntarily sought Christian faith. However I will be open to the facts of history in case the first contacts prove to have been the true origin of the present Catholic Church in Korea.

In order to clarify this point, I will raise two questions. First, I want to bring out parallel examples from Chinese and Japanese history. We know that Christianity was introduced into China three different times: first, during the T'ang dynasty by Nestorians (635-845), then during the Mongol period by the Franciscans (1294-1368), and finally in the late Ming period by the Jesuits (1577 and onwards). Since there was no continuing community that connected these three introductions it will be the last introduction that is considered the origin of the present Catholic Church in China. Moreover, it was during the latter missionary period that the Nestorian Monument was discovered and identified. Its identification gave the missionaries great joy and pride at finding an old root of Christianity that went back 1000 years. Christianity was introduced into Japan twice, first by Francisco Xavier in 1549, and then re-introduced in 1859 with the opening of Modern Japan. It was in 1865 when the presence of hidden Christians was discovered and made known to the world by the newly arrived missionaries. Because many of the hidden Christians joined the Church it was confirmed that the Catholic Church, in fact, had continued in Japan.

It puzzles me, then, why the "hidden Christians" of Korea, the descendants of repatriated prisoners from Japan, if some communities continued, did not contact the newly arising Christian community in the late 18th century. Huang sa-young (黃嗣永), who explained the early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in the famous silk letter to the bishop of Peking, has nothing to report on previously existing communities of Christians. Even though some of them might have continued their personal practice of faith,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y contributed to the new beginning of the Church from which our present

Catholicism started. In other words, we might have to treat the first Korean Christians, baptized in Japan, as two earliest introductions of Christianity into China. If we view our first Korean Christian story as a separate and quite intriguing introduction, we will neither push them into Japanese Church history nor lose our justified pride that the second introduction is the real origin of our present reality. This attitude will also help us to more ardently attempt to recover any traces of the first Christians in Korea itself as Father de Medina encourages us to do.

Secondly, Father de Medina tries hard to show that Ruggieri's catechism(天主實錄) was introduced into Korea probably as early as 1585, which was well read by 1596. Ruggieri's catechism was written when the Jesuits in China wore Buddhist monks' attire and called themselves Bhikkhus from India, following Japanese adaptation. Therefore, the catechism used a lot of Buddhist vocabulary and tried to introduce Christian doctrine through Buddhist concepts. Matteo Ricci, who cooperated in the production of the first catechism, started another catechism(天主實錄) in 1594 with the awareness that Confucianism was more important among the Chinese literati. The first draft of Ricci's catechism was finished in 1596 and printed in 1603. Yi su-gwang(李睟光) in his book (1614) wrote that in 1603 he had seen Ricci's world map which was brought to Korea by a Korean ambassador to China, and also comments on Ricci's catechism and treatise on friendship. It is a well-attested fact that Ricci's catechism was known by the Korean literati from the beginning of the 17th century. Even though Ruggieri's first catechism was introduced earlier, it would have been overshadowed by the second catechism. Moreover, as far as we know, Korean Confucians were attracted to Ricci's catechism by their scholarly interests until the late 18th century. Before the real beginning of the Church, Hong yu-han(洪儒漢) is the only reported case (1770) of one who leapt from scholarly interest to a committed faith by reading the catechism.

Finally I want to add one remark on the concept of the "Church". The Church as a people of God is both mystery and sacrament of salvation. The Church is the sacrament of Jesus Christ, just as Jesus Christ himself in his humanity is the sacrament of God. Therefore the visibility of fellowship in a concrete historical setting is an indispensable element to recognize a Church in any locality. Although the fellowship may not be completed by sharing in the Eucharist and the presence of a hierarchy, at least fellowship in life, prayer, and charity has to be identifiable. I am afraid that this sacramental character of the Church has yet to be recognized in pre-18th century Korea in order to firmly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Church in that period of Korean Christianity. Until then, we can only talk about a "Christian diaspora" in Japan. Even for that concept I am grateful to Father de Medina and I appreciate his urging us to take this diaspora more seriously and to include them in Korea's Christian history.